

#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도서관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 B도서관 서포터즈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brary Working Exper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Focusing on the Case of Supporters at Library B

조 미 아(Miah Cho)\*\*

### 〈목 차〉

I. 서론	III. B도서관 대학생 도서관 서포터즈 사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V. 도서관업무 경험 분석
2. 연구 방법	1. 심층 면담 분석자료의 수집
II. 이론적 배경	2. 연구결과 및 해석
1. 도서관 서포터즈	VI. 결론 및 제언
2. 선행연구 분석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업무 경험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 B도서관에서 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목표와 진로선택, 서포터즈 참여 경험,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이 미래 사서를 위한 준비가 되고 실제 사서업무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서관 업무가 자신과 맞는지 맞지 않은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도서관 업무경험, 도서관 서포터즈, 문헌정보학과, 사례연구

###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that examines how an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library changes the perception on the career among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ineteen students working as library supporters at Library B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Korea were chosen as the research subject. An in-depth interview was individually conducted to observe the subject's career goal, career choice, experience as a library supporter, perception on the supporter program, and change of thoughts on career after participating in the supporters program.

In the study result, the students perceived that the library supporter was a very meaningful activity that lets them learn about the actual librarian work and prepares them for future job as a librarian. Also, the supporting activity provides the students with a good opportunity to check in advance whether the librarian work fits them when they choose the future career.

Keywords: Library working experience, Library supporter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se study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iah100@naver.com)

•논문접수: 2018년 8월 16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69-192,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09.16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문헌정보학 관련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면 사서를 채용할 때 도서관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계약직이나 야간 연장 사서를 선발하는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 유경험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정보학과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헌정보학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 교육하고 전공과 관련한 곳에 취업시키는 것이다. 도서관 업무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서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2012년 전국 4년제 문헌정보학과 학과 및 학부에 개설된 도서관실습 교과목 현황 조사 연구(이수영, 김유승 2012: 152)에 의하면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또는 학부 및 전공이 개설된 전체 34개 대학교 중 도서관 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개교, 79%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교과목은 대부분 '전공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고 주로 고학년 교과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고학년이 되어 관련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만 도서관 업무를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도서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도서관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이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취업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도서관 업무가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미리 경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분야를 발견, 선택해야 하는 진로의사결정이 주요한 과업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세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며,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김지영 2015).

특히 사서로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는 일은 도서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도서관 업무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B도서관의 서포터즈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참여과정 및 경험,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에 대한 인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 업무 경험과 진로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 연구는 독특한 사례,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례, 그것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좋은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은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Creswell 2015: 126). 도서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B도서관의 대학생 서포터즈 사례를 제시하고 관장과 사서를 대상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에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업무경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써 연구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층면담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으려고 할 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김영천 2012: 324).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도서관 서포터즈 업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방법론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서관 서포터즈

서포터즈는 영어 'Supporters'에서 유래된 말로써 그 뜻은 원래 지원자, 후원자, 지지자, 지원부대 등의 뜻을 지니며 일반적으로는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한 기업의 홍보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현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은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섭방방 2016).

도서관의 서포터즈 개념은 관종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서포터즈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서포터즈는 도서관 행사 기획·홍보, 신입생과 유학생 도서관 투어 및 도서관 이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고 이화인의 도서관 이용을 돕는 봉사 그룹으로 2015년 3월에 신설되었다. 도서관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은 도서관과 학생들의 소통을 돕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며 도서관 투어, 도서관 이용 캠페인, 도서관 서비스 이용 지원, 도서관 행사 기획 및 홍보 지원, 도서관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도서관 홍보대사 역할인 동시에 이용자와 도서관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2018).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공공도서관의 서포터즈는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광양시립도서관의 청소년 도서관 서포터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도서관 서가 정리, 독서 후 서평 쓰기를 공통 활동으로 하며, 책 읽어주는 서포터즈와 행사 보조 서포터즈로 나누어진다. 책 읽어주기 서포터즈는 아이들에게 동화 및 그림책 읽어주기 담당하며, 행사 보조 서포터즈는 도서관 운영 행사, 프로그램 보조를 담당하고 있다(광양시립도서관 2016). 칠원도서관 서포터즈는 3개월 이상 무보수 활동을 원하는 초등학생 5~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서가정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책 찾기, 자료 검색, 회원 가입 등을 도와주고, 동화구연, 책읽어주기, 외국어책 읽어주기, 기타 도서관 행사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와 행사 프로그램 참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 2. 선행 연구 분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관련 직업 체험에 관한 연구는 조아미(2001)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재학 중 전공 관련 직업체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직업 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재학 중 직업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 85.7%의 학생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다예(2001)는 미술관 서포터즈 활동이 미술인식 변화와 자기계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술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전공자 대학생 3명, 미술 비전공자 5명 등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미술관 서포터즈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시작했지만, 미술관 서포터즈 활동에 3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감, 책임감, 자부심을 느꼈으며, 미술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만족감 뿐 아니라 미술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김지영(2015)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전공만족도'와 '대학 기관 및 학과 교수의 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의사결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잘 맞으며 전공학습에 의욕을 느끼는 정도 즉,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수영과 김유승(2012)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개설된 도서관실습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소재 42개 구립 공공도서관의 실습교육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운

영론'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에 2회씩 각각 5주, 8주간 공공도서관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정보학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주체의 요구에 근거한 체계적 실습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노영희와 최원태, 홍수지(2014)는 예비사서-사서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3개월간 운영한 후에 프로그램 전후 설문을 통해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진로를 상담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문헌정보학과와 특성상 현장경험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예비사서-사서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들의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및 비전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현장 경험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Ⅲ. B도서관의 대학생 도서관 서포터즈 운영 사례

B도서관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다. B도서관은 K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협력하여 사서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한 예비사서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도서관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 초기에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초 전공 수업시간에 공공도서관 관장 및 직원을 초청하여 서포터즈 모집 안내를 하다가 2017년부터는 신입생의 '전공및진로탐색' 시간에 서포터즈 모집 안내를 하고 있다. 수원시 B도서관 관장을 초청하여 신입생들에게 공공도서관의 취업의 현실에 대한 특강을 하고, 특강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 업무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공도서관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1학기 초에 서포터즈를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추후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B도서관이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맞춰 사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예비사서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4학년 때 3~4주의 짧은 실습기간이 전부라는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예비사서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장기실무 경험을 기회를 제공하여 사서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예비사서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B도서관 서포터즈의 추진 목표는 장기실무 경험을 통해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서관 업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선배사서와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1> B 도서관 서포터즈의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실무 경험을 통해 도서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서로서의 자긍심 고취</li> <li>○ 도서관 업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li> <li>○ 취업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선배사서와의 소통의 기회 제공</li> </ul>
---

2017년 도서관 서포터즈의 월별 활동 내용은 크게 열람봉사, 장서개발, 문화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구분된다. 연중 이루어지는 도서관 서포터즈의 활동은 대출반납과 민원 응대, 서가 정리 및 중고생 봉사자 관리, 유아 및 영문 도서 보호 필름 부착 작업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 학생들은 자료실 용품 재고 파악 뿐만 아니라 기증도서 및 폐기대상 자료 선별, 추천도서 선정 및 목록 파악, 이용자 설문 배포 및 작성 안내, 월별 테마 프로그램 운영 보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2017년 B도서관 서포터즈의 월별 활동 내용

구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	12월
열람 봉사	·자료실용품 재고 파악 및 재정리		·보존서고 정리 및 폐기 대상 자료 별 작업		·보존서고 재정리 및 청소		·이용자 설문 배포 및 작성 안내
	·대출반납과 민원 응대 ·환경 미화서가 정리 및 중, 고생 봉사자 관리 ·유아 및 영문 도서 보호 필름 부착 작업						
장서 개발	·기증도서 선별 및 장서화 ·타 어린이 관련기관 장서 재기증 도서 선별 작업		·소장 자료 중수와 복본 파악 ·복본 보존서고로 이관				·각종 추천도서목록 파악 및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개기증 도서 선별 및 목록 작성				
문화 프로그램 (운영 보조)	·겨울방학 문화프로그램 ·설날맞이 문화프로그램		·삼진날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주간행사 ·사이버트 구상 및 진행	·단오문화운영 ·여름방학 이벤트 구상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 (1박2일, 숙박수영장)	·가을테마 브레인트딩 및 도서관 꾸미기 ·할로윈테마 도서관 꾸미기 및 이벤트 진행	·13주년 행사 구상 및 진행 ·할로윈 이벤트 구상 및 진행 ·김장행사 ·건축학교 ·동지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북트리 기획 및 설치
	·두런두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진행 (지역아동센터 방문)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B도서관의 관장과 사서 2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9일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도서관장은 전에 근무하던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인턴제로 활용한 후에 인턴 기간이 끝난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B도서관에서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는 사서의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하는 학생을 통해 주말의 사서 인력 부족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포터즈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는 기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고, 서포터즈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답변했다. 면담 대상 사서 모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도서관 업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 경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저는 이 도서관에 오기 전에 서울의 N도서관에서 D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12학점을 인정해주는 인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어요. 인턴기간이 끝난 학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B도서관에서 적용하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사서가 담당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사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주로 토요일과 주말에 도서관 서포터즈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서관장)

자원봉사라는 명칭보다는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네요. 일반기업에서는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좀 더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의도였어요. (도서관장)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도서관 업무 경험이 학창시절에 매우 필요하죠. 도서관 서포터즈제 활동을 하면서 쉽게 도서관 업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사서 A)

대출/반납 등 사서의 일상 업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서 B)

## IV. 도서관 업무 경험 분석

### 1. 심층 면담 분석자료의 수집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은 심층 면담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면담자의 개인적인 질문기술이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담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만든 면담방법이다(김영천 2012: 326).

심층 면담은 B도서관에서 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19명을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대상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 대상자는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명, 여학생 13명으로 이루어졌다. 학번은 12학번 2명, 13학번 1명, 14

<표 3> 면담 대상자

성명(가명)	학번	나이	성별	서포터즈 참여 경력
김준하	12학번	27세	남	1년9개월
김아랑	12학번	26세	여	1년2개월
최영란	13학번	25세	여	1년11개월
김수진	14학번	24세	여	2년10개월
송미라	14학번	24세	여	1년7개월
이경애	15학번	23세	여	1년10개월
양민수	16학번	22세	남	1년4개월
신은경	16학번	22세	여	3개월
김연주	16학번	22세	여	3개월
정민희	16학번	22세	여	1년5개월
함소희	16학번	22세	여	1년4개월
윤지영	16학번	22세	여	1년4개월
박민중	17학번	21세	남	7개월
유선민	17학번	21세	남	5개월
김경서	17학번	21세	남	5개월
김문철	17학번	22세	남	4개월
이은혜	17학번	21세	여	5개월
김소영	17학번	21세	여	5개월
서현주	17학번	21세	여	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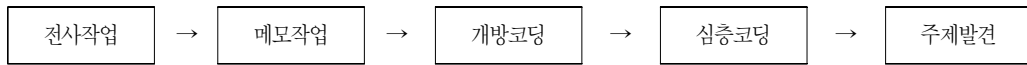
학번 2명, 16학번 6명, 17학번 7명이었다. 참여경력은 1년 미만이 8명이며, 1-2년이 10명, 2-3년이 1명이다. 면담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2주간 대학생과 연구자의 일대일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1인당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표 3> 참조).

<표 4>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항목

대 항목	소 항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성별, 학번</li> <li>• 도서관 서포터즈 참여 기간</li> </ul>
진로목표와 진로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포터즈 참여 전 진로목표</li> <li>•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사항</li> </ul>
서포터즈 참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계기</li> <li>• 경험한 업무</li> </ul>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포터즈 프로그램 참여하기에 적합한 시기</li> <li>•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li> </ul>
서포터즈 참여를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포터즈 프로그램 참여한 후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li> </ul>



심층면담 질문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목표와 진로선택, 서포터즈 참여 경험,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참여를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총 5개 대항목, 9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면담 전에 미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되었으며, 수집된 녹음자료는 모두 전사를 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한 분량은 A4 용지로 총 46장이 나왔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 과정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되었다(김영천 2012; 530-531).



<그림 1>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전사 작업은 질적 자료 분석의 주요한 한 과정으로서 자료의 기록과 저장

<표 5> 연구자료 분석 범주

범주	하위주제	세부주제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 목표에 대한 고민	사서의 길
		다양한 진로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	흥미
		적성
직업의 안정성		
도서관 서포터즈 경험	참여하게 된 계기	수업시간 안내
		친구의 영향
	서포터즈의 활동 내용	일상적 업무
		문화행사 보조
		봉사학생 교육 및 관리
	도서관 업무 중 어려웠던 점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의 어려움
		봉사학생을 다룰 때 어려움
		업무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
어린이도서관이 갖는 특별함		
이용자와 소통하는 장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활동 시기의 적절성	입학초기부터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획득
	긍정적 인식	사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할 기회 마련
		학교와 도서관 현장의 차이 인식
		사서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 형성
	평가 및 개선점	방학이나 시험기간의 업무 가중
		시간이 많이 소요됨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	서포터즈 활동이 진로준비 결정에 준 영향	사서의 길에 대한 확신
		사서가 아닌 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한 진사 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면담과정을 음성 녹음한 자료를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전사하여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메모작성업에서는 면담을 기록한 컴퓨터 파일 자료를 읽어보면서 키워드, 주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파일에 메모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개방코딩에서는 면담한 자료를 보면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면담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요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용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네 번째 단계인 심층코딩 단계에서는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타나는 각 범주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인 주제의 발견에서는 분석된 코드들을 대조, 비교하면서 서로 관련되거나 연결되는 코드를 찾고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4개의 상위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9개의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 2. 연구결과 및 해석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서포터즈 참여과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 가. 진로에 대한 고민

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목표'가 무엇이며, 학생들이 진로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진로 목표는 '사서의 길'로 결정한 학생들과 '다양한 진로에서 고민'하는 학생들로 구분되었다. 사서의 길로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서가 되고 싶어서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한 경우였으므로 진로 목표를 사서로 결정한 상태였다. 사서로 진로목표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중학교 때부터 사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책에 관련되어서는 그 쪽 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소영(17학년)

고1부터 사서가 되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싶어요. 유선민 (17학년)

중고등학교 때 도서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할 때는 사서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나기도 하고 다른 쪽도 찾아보고, 선배들과 이야기하다가 사서직공무원 시험을 볼까 준비 중이에요. 김연주 (16학년)

'다양한 진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진로목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사서나 정보전문가, 기록관리, 정보학 IT쪽, 대학도서관

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가지 직업의 선택 가능성을 모두 생각하고 있었다.

원래 심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요. 고3 이후 목표가 사라졌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집안에서 사서교사가 되길 바라요. 개인적으로는 사서나 정보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김경서(17학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목표를 잡지는 않았지만 기록, 정보학 IT쪽,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쪽으로 대략요. 김문철(17학번)

도서관 서포터즈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은 흥미, 적성, 직업의 안정성, 자기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활동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상태로 쾌와 불쾌의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대상에 접근하려는 행동경향으로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Schiefele 1999). 많은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거운 감정,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흥미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는 게 고문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유선민(17학번)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했을 때 즐거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양민수(16학번)

직업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이랑(12학번)

두 번째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적성’이었다. 적성은 일정한 훈련에 의해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적성은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작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예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은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성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편이거든요. 금방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도 영향이 있어서 체력이 안좋아지거든요. 김수진(14학번)

첫째는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냐죠. 정민희(16학번)

셋째, 몇몇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청년 실업자 증가와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졸업생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평생직업으로 할 수 있는 직업, 안정적이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할 수 있어야 가장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지영(16학번)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이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가? 사서에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하(12학번)

변화가 없는 것요. 안정적이고,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주말에 쉬는거요. 함소희(16학번)

넷째, '자기만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기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경애는 자기만족과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본인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도 중요하고 미래전망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버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경애(15학번)

#### 나. 도서관 서포터즈 경험

연구자는 학생들이 도서관 서포터즈를 어떻게 처음 접하며 지원하게 되었는지 살피고, 학생들의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과 면담에서 서포터즈를 접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전공시간에 마련한 서포터즈 모집 때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K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는 B도서관의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학기 초 전공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대다수가 수업시간에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소개할 때 지원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2학년 때 관장님이 오셔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신청했어요. 이경애(15학번)

1학기 때 전진탐때 교수님이 소개해주시고, 관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직 어느 분야로 가겠다고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 저것 해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보려고 신청했어요. 서현주(17학번)

수업 시간에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소개할 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친구의 영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친한 친구가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 학생도 있었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친구의 영향으로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했지만 학생들은 도서관 실무경험을 하고 싶었고, 사서의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알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2학년 수업시간에 관장님이 오셔서 모집했어요. 그때는 신청을 안했는데요. 친한 친구인 J와 H가 1년 하는 것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실무 경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어요. 송미라 (14학번)

대학 동기 중 B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P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주었어요. 제가 휴학을 1년 했는데 휴학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도서관 일을 할 수 있나 나에게 사서가 맞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최영란(13학번)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도서관 서포터즈의 활동은 크게 ‘일상적 업무’와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포터즈의 ‘일상적 업무’는 대출/반납, 도서배가, 회원증 발급이었다. 이외에도 이용자를 위한 간단한 참고질문에 대한 응답, 봉사학생 입력 및 관리 등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의 ‘일상적 업무’ 내용은 자료실의 사서가 담당하고 있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 서가 정리하고요. 이용자분들 가끔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련해서 모르는 것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거나, 대출/반납, 데스크 업무를 해요. 서현주(17학번)

대출/반납을 하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것 신간도서 MARC는 사서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 외 잡일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봉사학생 관리도 하고요. 컴퓨터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미라(14학번)

도서관 서포터즈의 활동 중 매주 주말에 운영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방학 중 문화행사에 서포터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서포터즈 경력이 1년 이상인 학생은 문화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업무 경력이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문화행사의 스텝으로 참여시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문화행사 업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끔 프로젝트 처럼요. ‘1박2일’, ‘동지행사’ 같은 프로그램을 보조했어요. 2016년 8월 여름방학 때 ‘책만들기’ 기획도 했어요. 이경애(15학번)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2016년도에는 봉사하는 동기 3명이 길게 15주 정도 프로그램을 짜서 한 것이 있거든요. '두런 두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오감놀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2주에 한 번씩 정해서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최영란(13학번)

행정을 제외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봤어요. 문화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기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김준하(12학번)

방학 중에는 프로그램에 서포터즈가 많이 참여해요. 동화책의 배경을 모티브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박수영장'이라는 동화책이에요. 도서관 옥상에 수영장을 직접 만들었어요. 수박을 화채로 만들어 팔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동화책에서 따와서 만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는게 참 놀라웠어요. 서현주(17학번)

도서관 업무 중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이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업무 파악이 안되고 이용자가 있으면 긴장되기도 하며, 이용자가 질문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사서 선생님께 전화해서 해결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용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는게 힘들어요.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었어요. 다니면서 배웠는데요. 막상 이용자분이 계시면 긴장해져요. 신은경(16학번)

이용자분이 질문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응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서선생님을 찾아서 여쭙어보고 해결했어요. 양민수(16학번)

제가 혼자 있는데요. 이용자가 뭘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잘 몰랐어요. 도움을 청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전문지식이 없다가보니까요. 이은혜(17학번)

그러므로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도서관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매주 문화행사나 영화 상영 등에 대한 정보를 서포터즈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의 연체에 대한 항의, 대출권수 제한, 문화행사 운영 인원 문제 등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은 전화하자마자 연체에 항의하는 이용자를 응대하는 게 어렵다고 하였고, 김아량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불만처리가 힘들었으며, 김소영은 이용자의 대출권수 제한에 대한 항의에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응대가 힘들어요. 반납을 했는데 연체라고 항의를 하죠. 전화하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이 나중에 집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수진(14학번)

이용자 불만처리가 힘들었어요. .... 5명 이상 신청해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왜 우리 자식 2명은 왜 안되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규칙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채워져야지 가능했거든요. 김아랑(12학번)

자기 아내는 10권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은 7권이냐고 항의했어요. 그 분 말로는 둘 다 10권이 되어야 한다고요. 김소영(17학번)

셋째, 서포터즈 학생들은 ‘봉사 학생을 다룰 때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는 중·고등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하러 온 중·고등학생이 배가하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힘들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봉사활동하는 중학생들이 책을 잘못 꽂는다든지, 친구들과 노느라 책을 안꽂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소영(17학번)

넷째, 학생들은 ‘업무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반납/대출할 때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확인하는 학생도 있었다. 봉사학생 봉사시간을 부여할 때 실수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 도서관 업무 적응할 때 힘들었어요. 반납/대출 할 때도 실수하면 안된다는 약간 강박증 같은게 생겨서요. 혹시 반납할 때 안찍고 넘어가면 이용자에게 민폐가 되니까 몇 번이나 확인하려고 하고요. 김경서(17학번)

업무 중 실수했던 것들요. 봉사학생 활동을 4시간씩 찍어야 하는데 가끔씩 실수로 학생들이 기다리니까 급히 처리해준다고 하다가 3시간 59분으로 처리했었어요. 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송미라(14학번)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서포터즈 학생들이 기존에 가졌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였다. 첫째, 도서관 서포터즈 학생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정적인 분

위기인 줄 알았는데 활기찬 ‘어린이도서관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이라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우선시 하고 할로윈 이벤트, 동지 행사 등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린이도서관의 활기찬 분위기를 선호하며, 어린이와 함께 하는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원래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교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도서관은 어린 친구가 많아서 활발하고 뛰어다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좋아요. 이경애(15학년)

일반 공공도서관과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이라 그런지 할로윈 이벤트, 동지 행사를 하는데요. 문화프로그램이 다채롭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수진(14학년)

도서관 중에서도 어린이도서관 유형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제로 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하다보니 동심을 찾는 기분이에요. 좋았어요. 이은혜(17학년)

둘째, 학생들은 도서관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장’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사서의 업무가 대출/반납, 배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용자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사서는 책정리, 대출/반납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용자를 직접 만나서 어떤 대우를 해드리고 하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서비스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지영(16학년)

생각보다 사서가 이용자와 직접 닿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을 걸어오시는 이용자분도 계세요. 유선민(17학년)

셋째, 도서관 서포터즈 학생들은 도서관을 전시회,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으로 좋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것 같아요. .... 도서관에서 전시회 등 여러 가지를 하니까 제가 가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영란(13)

복도에 보면 뭔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꾸미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계절별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까도 2층에 책으로 트리를 만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3층도 일지 쓰러 올 때 마다 주제가 바뀌어 전시되는 게 바뀌어서 재미있어요. 송미라(14학년)



#### 다.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활동 시기는 입학초기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획득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구분된다. 서포터즈 활동은 ‘입학 초기’부터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입학 초기’부터 서포터즈 활동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에서는 1학년이 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1학년부터 활동을 하다 보면 학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전공과목에 흥미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처럼 1학년때 1학기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솔직히 과에 대해서 애착도 별로 없었고, 자부심을 갖지 못했어요. 성적에 맞춰서 지원해서 온 거라서요. 막상 시간이 제일 많은 1학년부터 활동을 하니 학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2학기때도 전공과목을 들으면서 흥미도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업무를 직접 하다보니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 같고, 서포터즈 활동을 안하는 친구들보다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은혜(17학번)

저는 2학년 1학기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3학년, 4학년이 되면 바빠지게 되니까 프로그램에 신경을 못쓰게 되드라구요. 그나마 여유로운 시기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15학번)

1학년은 아직 진로를 결정 못한 시기이므로 서포터즈 직접 경험을 통해서 사서가 맞는 직업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서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 목록 등 교과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다고 하였다. 서포터즈 경험을 통해 공부할 것이 무엇이고 미래의 진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학년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서포터즈 직접 경험을 통해 사서가 맞는 직업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배우는 과목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 목록 등 교과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김아랑(12학번)

처음 1학년 수업을 들었을 때는 되게 막막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서 이미지와는 다른 너무 역사적인 것 위주로만 배워서요. 도서관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서포터즈와 함께 경험을 한다면 아! 내가 공부할 게 무엇이고 미래에 내가 나아갈 바가 무엇이고, 나의 진로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하(12)

몇몇 학생은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획득 후’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공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2학년 때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학년 2학기나 아니면 1학년을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백번대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잖아요. 꼬마들이 달려와서 “이 책 어디 있어요?”할 때 아는 책을 못해주니까요. 유선민(17학번)

2-3학년 사이에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은 정신 없고 전공에 대한 감이 안잡혀 있고 교양도 많이 들어야 해서요. 2학년 때부터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송미라(14학번)

학생들이 생각하는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사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할 기회 제공’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였다.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은 대학생 시절에 미리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며, 도서관의 운영방식이나 실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서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적성에 맞는지 모르고 졸업할 수 있는데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미리 도서관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복수 전공이나 다른 과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적인 사서를 양성하는 데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밑바탕,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이 대학생 시절에 미리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해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서의 전망(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김연주(16학번)

막연히 사서를 생각하고 외봤는데 적성에 맞는지 모르고 졸업할 수 있잖아요. 미리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복수전공이나 다른 과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문헌정보학과라고 사서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송미라(14학번)

전문적인 사서를 양성하는 데 밑바탕,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은혜(17학번)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몰랐거든요. 김준하(12학번)

둘째, 학생들은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도서관 현장의 차이를 인식’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와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과 학생이라면 도서관 업무는 꼭 한 번 체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유용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와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 겹을 좀 알게 해주고 겹을 좀 메울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유선민(17학번)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꼭 한 번은 체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배우는 것 하고 강의실에서 앉아서 배우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막상 데스크 업무를 하다보면 도서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김문철(17학번)

셋째,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학과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있고,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를 통하여 학과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주말을 풀 희생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가치가 있어서 나와요. 동기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기회가 있고, 실제 일을 해보면서 배우는 게 있고 활동하면서 재미있어요. 양민수(16학번)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져요. 교우관계를 넓힐 수 있어요. 정민희(16학번)

학과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되요. 매년 신입생과 선후배와 친해질 수 있어요. 김수진(14학번)

학생들은 도서관 서포터즈의 평가 및 개선점으로 첫째, ‘방학이나 시험 기간의 업무 가중’을 이야기 하였다. 방학에 인력 부족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업무가중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서관 입장에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쓰잖아요. 집이 먼 학생들은 방학이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쓰던 인력에서 갑자기 인력이 빠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당황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업무가중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김소영(17학번)

둘째, 학생들은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주말에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대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을 하면서 다른 대외활동이나 다른 알바를 병행하기는 어려워요. 김문철(17학번)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은데요. 주말에만 일을 하다보니까 이 도서관 서포터즈 말고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사철마다 일요일에도 프로그램에 동원될 때가 있는데요. 윤지영(16학번)

셋째, 시급이 적어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측에서도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고, 학생 측에서도 일을 제대로 배우고 일해야겠다는 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시급이 적어요. 그래서 봉사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봉사다 보니까 시키는 쪽에서도 엄청난 것 안 시키고, 받는 쪽에서도 돈을 조금 밖에 못받고 일을 하니까 일을 제대로 배우고 일해야겠다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서현주(17학번)

#### 라.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서관 업무 경험과 진로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성 있는 요인은 ‘서포터즈 참여 경력’과 ‘학번’으로 나타났다. 즉, 서포터즈 참여 경력이 많을수록, 서포터즈 참여하는 학생 중 학번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진로 목표가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 참여 경력이 1년 이상인 학생 10명(100%)은 모두 진로 목표가 사서였다. 서포터즈 참여 경력이 7개월 이하인 학생은 9명인데 그 중 진로 목표가 사서인 학생은 2명이었으며, 7명은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사서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긴 학생이 다수였다. 이러한 진로 준비·결정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몰라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신은경(16학번)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이 일을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최영란(13학번)

전에는 막연하게 사서가 되어야지 했는데요. 지금은 사서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양민수(16학번)

저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서가 꿈이었었는데 서포터즈 하면서 꿈이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박민중(17학번)

제가 사서라는 직업이 제 성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사서를 해도 저랑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함소희(16학번)

학생들은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며, 사서를 미래 진로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년 정도 도서관 서포터즈를 해보니까 사서를 해도 자신과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린이도

서관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사서의 길’을 진로목표로 변경한 학생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고 어린이들이 싸울 때 조정하는데 힘들며 그림책 보다는 성인이나 학술적인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막연하게 사서를 원했는데요. 서포터즈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어린이도서관에서 3년 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들과 그렇게 안맞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고 그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하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못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공공도서관 사서는 하겠지만 어린이도서관 전용도서관은 안할 것 같아요. 김수진(14학번)

전 어린이들과 안맞는 것 같아요. 별 거 아닌 것 같고 싸울 때 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오늘 건축학 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서도 사소한 재료를 쟁탈하는 거로 싸우고, 뭘 만들고 싶은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남자아이들이 뭘 던져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윤지영(16학번)

사서가 하는 일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어린이 도서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 울어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도서와 저와 거리가 있어요. 그림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와 그다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성인이나 학술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맞을 수 있지만요. 김문철(17학번)

진로준비·결정의 변화로 ‘사서가 아닌 길’을 선택하는 학생도 나타났다. 막연히 사서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도서관 업무를 하다보니까 동적이고 현장에서 뛰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알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막연히 사서가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맞는 것은 단순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고민해보고 현장에서 뛰는 게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현주(17학번)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B도서관에서 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목표와 진로선택, 서포터즈 참여 경험,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목표는 사서로 결정된 경우와 다양한 진로에서 고민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는 고려하는 점은 흥미, 적성, 직업의 안정성, 자기만족

순이었다.

둘째, 도서관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로 수업시간 안내를 통해서였으며, 친구의 영향으로 나중에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학생도 있었다.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대출/반납, 도서 배가, 회원증 발급 등 사서의 일상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보조할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경력 있는 학생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조용하고 정적인 곳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 곳, 어린이도서관이 갖는 특별함이 있는 곳, 이용자와 소통하는 장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되었다.

셋째, 도서관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사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 학교와 도서관 현장의 차이 인식, 사서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 형성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가 및 개선점으로는 방학이나 시험기간의 업무 가중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진로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대다수의 학생이 '사서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긴 반면에, 사서는 적성에 맞지 않으므로 '사서가 아닌 길'을 가야겠다는 학생이 나타났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은 미래 사서를 위한 준비가 되고 실제 사서업무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서관 업무가 자신과 맞는지 맞지 않은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재학 시기에 도서관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과 지역도서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광양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8. 8. 14]. <[http://lib.gwangyang.go.kr/lib/?m=bbs&bid=b\\_01&uid=10307](http://lib.gwangyang.go.kr/lib/?m=bbs&bid=b_01&uid=10307)>.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지영. 2015.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75-108.
- 노영희, 최원태, 홍수지. 2014. 예비사서-사서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후 인식변화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8(1): 117-147.
- 민다예. 2017. 『미술관 서포터즈 활동이 자기계발과 미술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

-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online]. [cited 2018. 2.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038&cid=42126&categoryId=42126>>.
- 섭방방. 2016. 『기업의 SNS 홍보와 친구추천이 소비자 구매의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수영, 김유승. 2012.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 S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47-168.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online]. [cited 2018.8.14.]. <[https://lib.ewha.ac.kr/local/html/supporters\\_01](https://lib.ewha.ac.kr/local/html/supporters_01)>
- 조아미. 2001.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3: 29-46.
- 칠원도서관 [online]. [cited 2018.8.14.]. <<http://chilwonlib.haman.go.kr/supporters>>.
- Creswell, John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Schiefele, U. 1999. "Interest and learning from tex."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3(3): 257-27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ilwon Library.[online]. [cited 2018. 8. 14]. <<http://chilwonlib.haman.go.kr/supporters>>.
- Cho, A-Mi. 2001. "The Effect of Major-Related Career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mong Prospective Youth Leaders." *Studies on Korean Youth*. 33: 29-46.
- Creswell, John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online]. [cited 2018. 8. 14.]. <[https://lib.ewha.ac.kr/local/html/supporters\\_01](https://lib.ewha.ac.kr/local/html/supporters_01)>
- Gwangyang Municipal Library. [online]. [cited 2018. 8. 14]. <[http://lib.gwangyang.go.kr/lib/?m=bbs&bid=b\\_01&uid=10307](http://lib.gwangyang.go.kr/lib/?m=bbs&bid=b_01&uid=10307)>.
- Kim, Ji Young. 2015.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ship Program Experience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Deucation Research*. 34(2): 75-108.
- Kim, Young\_chun. 201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I. Paju: Academypress.
- Lee, Us-Young, Kim, You-Seung. "A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s

- Practical Training Program : Focused on a Case of S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47–168.
- Min, Da Ye. 2017. *Influence of 'Art Museum Supporter' Activities on Self-development and the Awareness of Art*.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Noh, Younghee. Choi, Won\_tae, Hong Suji. 2014. “A Study on Perception Change Before and After an LIS Student–Librarian Mentor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117–147.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Dictionary of education.[online]. [cited 2018. 2.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038&cid=42126&categoryId=42126>>.
- Ye, Fangfan. 2016. *The Influence of Corporate SNS Public Relations and Friends' Recommendation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and Satisfaction*. M.A.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